	보도자료			재외동포청 최적지
인천광역시	배포일자		3월 14일(화) ÷ 3매	신천뿐입니다
담당 부서 청년정책담당관	담 당 자	• 청년일자리 • 주무관		<u>1</u> ☎440-4176 1 ☎440-4179
사진(이미지)	□ 없음	음 ■ 있음	참고자료	■ 없음 □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최대 4천만원 근로환경 개선비 지원

- '2023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' 참가기업 모집 -
- 청년 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4천만원까지 시설개보수, 환경개선물품 구입비 지원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'2023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'참여기업을 3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.

코로나19 영향 이후 3고(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)로 인한 고용시장 한파와 함께 중소기업의 구직·구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, 기업 내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의 주요 기피요인으로 꼽힌다.

이에 따라 시는 청년들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청년들을 중소 제조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방안으로,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에 근로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한다.

올해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4일(화)부터 기업 지원정보제공 사이트인 인천비즈오케이(bizok.incheon.go.kr)에서 모집공고 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. 참가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.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·중견 제조기업으로, 최근 1년동안 인천 청년을 중소기업은 2명 이상, 중견기업은 8명을 초 과 채용한 기업이어야 한다. 올해는 약 44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.

선정기업은 청년 신규고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4,000만원까지 화장실, 휴게실,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 및 냉·난방기, 세탁기 등 환경개선 물품구매 비용 등을 지원받아 청년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.

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"인천 청년들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"이며 "관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청년 채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한편 이 사업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64개사가 지원을 받아 청년 약 1,58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,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가 90%를 상회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.

〈관련사진〉





▲ 2022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 모습(휴게실, 화장실)